

### 3학년 1학기 받아쓰기

3학년 이름( )

- \* 방법: 1.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내어 세 번 이상 읽기  
2. (띄어쓰기 지키며) 안 보고 써 보기  
3. 틀린 낱말 익히기  
4. 틀린 낱말 다시 안 보고 써 보기

**1회** (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ㄱ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어제 과일을 먹었다.
- 이것은 국어 교과서야.
- 사진을 찍어요.
-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어요.
- 동생이 나보다 키가 작아요.
- 죽이 식어서 먹기 좋아요.
- 할머니 댁에 가자.
- 가족과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.
- 아이스크림이 녹아요.
-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.

**2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ㄴ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눈을 크게 떠요.
- 친구들과 산에 가요.
-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요.
- 동물원에서 기린을 보았다.
- 우리는 3학년이에요.
-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.
-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어요.
- 기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.
- 예쁘게 자라는 어린이들
- 길에서 돈을 주웠어요.

**3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ㄷ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포장을 뜯어요.
- 새싹이 돋아요.
- 받아쓰기 공부를 하자.
- 떡이 딱딱하게 굳었다.
- 나를 믿어 주시는 부모님
- 바지를 걷어 올리고
-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.
- 흙이 묻어서 옷이 더러워졌다.
- 심청은 젖을 얻어먹고 자랐다.
- 비가 내려서 빨래를 걷었다.

**4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ㄹ, ㅁ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함께 춤을 추자.
- 보름달이 떴어요.
- 구름이 많아요.
- 머리를 깨끗하게 감아라.
-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야.
- 숙제를 다 하고 놀아라.
-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렴.
- 위험한 곳에 가지 말아야겠다.
-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
-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

**5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ㄴ, ㅅ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친구가 입원을 했어요.
- 손잡이를 잘 잡아라.
-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요.
- 스스로 옷을 입었어요.
- 활짝 웃으니 참 예쁘구나.
- 색종이로 꽃을 접었어요.
- 손톱이 빨리 자랐네.
- 답안지에 이름을 써 주세요.
- 손을 깨끗이 씻어라.
- 연필 좀 집어 줄래?

**6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ㅈ, ㅊ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아기가 젖을 먹어요.
- 개가 무섭게 짖어요.
- 책꽂이에 책이 많아요.
- 낮이 많이 익는데 누구더라?
- 벌써 얼굴을 잊으신 거예요?
- 비를 맞아 옷이 젖었다.
- 낮에는 햇빛이 뜨거워.
- 꽃이 피었어요.
- 장갑을 찾아 주세요.
- 새를 쫓아요.

**7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ㄱ, ㅌ, ㅍ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.
- 강아지가 냄새를 맡아요.
- 산이 높아서 올라가기 힘들어.
- 나무를 심으러 숲으로 가요.
- 깊은 강물이 흘러요.
- 우물 밑에 무엇이 있을까?
- 과일을 먹고 싶었어요.
- 못은 자석에 붙어요.
- 내 친구와 이름이 똑같아요.
- 깊은 눈썹이 부러워요.

**8회** (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소리 나는 말 - 'ㄱ, ㅍ' 받침을 살려 써요.)

- 너는 떡볶이를 좋아하니?
- 연필깎이가 필요해.
- 날이 좋으니 밖에서 놀자.
- 사과를 깎아 주세요.
- 학교에 가려고 차에 탔어요.
- 드디어 숙제를 다 했어요.
- 방학이라 늦잠을 잤어요.
- 엄마랑 꽃을 심었어요.
- 나는 멸치 볶음을 좋아합니다.
- 자기 전에 꼭 이빨을 닦아라.

**9회** (대표 소리 'ㄱ' 으로 소리 나도 원래 받침-ㄱ, ㅋ, ㆁ으로 써야 하는 말)

- 아빠와 낚시를 했다.
- 쪼다 보니 팔찌가 되었다.
- 세수 하고 이도 닦고
- 머리를 묶고 학교에 갔다.
- 동녘 하늘에 해가 떴다.
- 자서 이를 못했다.
- 채소를 볶고 양념을 넣었다.
- 꽃을 꺾지 마세요.
- 반죽을 섞기 전에 기다려.
-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하렴.

**10회** (대표 소리 'ㄷ' 으로 소리 나도 원래 받침-ㄷㅅㅈㅊㅌㅍ으로 써야 하는 말)

- 깃발을 높이 들어라.
- 햇빛이 뜨거워.
- 손가락과 젓가락을 주세요.
- 돛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어요.
- 자동차에 짐을 싣고 가요.
- 개가 짖고 있어요.
-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라.
- 이불을 덮으니 따뜻해요.
- 맛 좋은 호박엿
- 오후에 낮잠을 잘래요.

**11회** (대표 소리 'ㅂ' 으로 소리 나도 원래 받침-ㅂ, ㅍ으로 써야 하는 말)

- 물이 깊지 않아요.
- 땅을 짚고 헤엄쳐요.
- 이불을 덮고 자요.
- 무릎 보호대를 꼭 해야 한다.
- 앞산과 뒷산에 진달래가 피었다.
- 우리 조상들이 신던 짚신이야.
- 공부할 때 엎드리지 마.
- 밥그릇이 깨졌다.
- 입술에 염증이 생겼어요.
- 개미들이 나뭇잎 주변에 많다.

**12회** (1회~11회 복습)

-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어요.
- 동물원에서 기린을 보았다.
- 흙이 묻어서 옷이 더러워졌다.
-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
- 손을 깨끗이 씻어라.
- 책꽂이에 책이 많아요.
-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.
- 연필깎이가 필요해.
- 채소를 볶고 양념을 넣었다.
- 손가락과 젓가락을 주세요.